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우연의 일치처럼 ‘화씨’로 시작하는 영화 두 편을 연이어 만나게 되었다. 하나는 미국의 부조리한 현실 고발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 붐을 일으킨 마이클 무어의 ‘화씨11/9 : 트럼프의 시대’(2018)이다. 다른 하나는 SF고전영화로 꼽히는 ‘화씨 451’(프랑스와 트뤼포, 1966)을 케이블TV 영화로 리메이크한 ‘화씨 451’(라민 바흐라니, 2018)이다. 재난적 테러에 직면한 부시 정부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고발한 ‘화씨 9/11’(2004)에서부터 제목에 굳이 ‘화씨’를 붙인 것은 사상의 자유 통제를 고발하며 영화화된 레이 브래드버리(1920~2012)의 원작 소설 ‘화씨 451’에 대한 오마주로 알려진 바 있다.

날씨가 체온 등 일상적으로 섭씨를 쓰는 우리에게 화씨는 환산이 필요한 표지이다. 우리의 섭씨처럼 일상적으로 화씨를 쓰는 미국에서 ‘화씨 451도’는 책이

‘화씨 11/9’, 그들의 민낯

불타는 온도로 (섭씨로 환산하면 233.77...°), 사상의 자유를 금하는 분서경유 재난상태의 징표로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SF소설, 영화, 다큐멘터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화씨 시리즈’는 정보화 시대 통제 권력의 문제를 다른 테마 장르로 보인다.

‘화씨 시리즈’와 통제 권력

마치 재치 문답처럼 ‘화씨 11/9’는 숫자 뒤집기 놀이로 열린다. 정치와 자본 권력의 아합을 고발한 전작 ‘화씨 9/11’의 숫자 순서가 뒤집어진 것인데 뉴욕이 충격적 테러를 당한 ‘9월 11일’이 2016년 ‘11월 9일’, 즉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로 연결된다. 무어의 재치라고만 보기에는 기묘한 우연의 일치이다.

“힐러리! 힐러리!” 이렇게 연호하며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온 듯 열광하는 대중집회로 영화는 시작된다. 트럼프 같은 인물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란 막강한 예상이 깨져 나간 후, ‘모든 것은 정말 꿈이었을까?’ 무어의 비판사관 운 질문과 함께 정치 권력만이 풀어나갈 미스터리로 주어진다. 퍼즐 맞추기 게임처럼 펼쳐지는 이 여정에서, 대선을 비롯한 온갖 선거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론몰이와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시대, 어

디에서나 손안에 들어오는 휴대전화와 일상의 공기 같은 정보화 시대, ‘과연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연이어 하게 만든다.

대선을 중심으로 중앙과 변두리를 오가며 펼쳐지는 무어의 카메라 탐사는 미시간주 플린트라는 빈민 지역에서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사건까지, 그리고 트럼프가 부동산 거부로 승승장구하며 보여 준 아메리칸 드림은 어떤 것인지, 언론이 보여 주지 못했던 비루한 민낯이 점차 드러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바마의 민낯을 보여 준 대목이다.

납중독을 일으킨 물 오염으로 재난에 빠진 플린트시를 방문한 오바마는 자본 권력을 옹호하는 주지사과 달리 해결사로 대대적 환영을 받는다. 대안을 발표하는 단상에서 자자마자 오바마는 급히 달려온 먼 길이기에 목이 마른지 물 한 잔을 요청한다. 그러자 그를 반긴 대중은 ‘생수병! 생수병!’을 외친다. 오염된 생수물이 아닌 병에 든 생수를 마시라는 배려이다. 그러나 그는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아니오, 저는 그냥 (수돗)물을 마실 겁니다”라며 고통을 나누는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 심지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 페인트가 묻은 작은 나무 조각을 먹고도 건강하게 자라난 에피소드까지 들려준다. 그런데 충격적인 대목은 깊이 들어간 카페

라가 잡아낸 그의 민낯이다. 그는 유리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보여 주려고 입술만 댄 것뿐이란 점이 들뜬 듯기 때문이다. “방문하기 전 그는 나의 대통령이었지만 방문 이후 더 이상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한 시민의 인터뷰도 곁들여진다. 그와 시민의 만남을 환영하는 커다란 거리의 벽화도 이 사건 이후 그의 머리 부분이 훼손된 이미지로 변화한다.

정보화시대, 민주주의란?

전북적 다큐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될수록 아픈 권력의 민낯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희망의 불씨도 보인다. 학교 총격사태로 충격을 받은 십대들이 불시에 SNS로 조직한 역사적인 대집회는 총기협회 후원으로부터 탈주하는 정치 세력화이다. 그것은 총기 위협 없이 평화롭게 살고픈 기본적 인권을 누리기 위한 피선거인의 권리 실천이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되찾는 운동을 벌이는 용감한 십대를 키운 워싱턴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어에게도 한 십대 학생은 전복적인 답을 보여 준다. “우리를 이렇게 키워준 건 SNS랍니다!”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를 내건 워싱턴보다 SNS 능력이 뛰어난 십대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민주적 풍경도 성찰하게 해 준다.

청춘 특 특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건  
크로스오버 앙상블 ‘친친클래식’ 대표

브라보(이탈리아어bravo): [감탄사] ‘잘한다’, ‘좋다’, ‘신난다’ 따위의 뜻으로 외치는 소리.

무대에 서는 사람이라면 관객의 진심 어린 ‘브라보’에 큰 기쁨과 위안을 느낀다. 연주자만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 정도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거의 듣지 못했다. 혼자만의 무대에서는. 나는 대학에서 성악, 즉 클래식을 전공했다. 평소 노래 부르기 좋아했던 탓에 그저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음악 선생님이었던 큰누나의 권유로 성악을 전공하게 됐다. 운이 좋게도 재수를 할 필요 없이 그해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입학 후 나는 ‘남들에 비해 타고난 소리를 지니지 못했다’는 혼자만의 핑계를 대기 급급했다. 사람들과 어울리

기 좋아해 노래는 제쳐두고 친구, 선배들 등 많은 사람들과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가고 졸업을 하게 됐다.

당연히 유학은 꿈도 꾸지 않았다. 시립합창단에 들어가기 위한 오디션을 보다가 운 좋게도 합격해 생애 처음으로 ‘월급’이란 것을 받고 노래를 하는 직장을 갖게 됐다. ‘꿈 없는 노래쟁이’에 불과한 나는 입단한지 4년이라는 시간을 또 방황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즈음 내 인생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다.

나 혼자만의 무대는 스스로가 두려웠고, 자신도 없었다. 그렇다고 날 불러주는 곳도 없었다. 수입은 많지 않았고 다가오는 미래가 불투명하기만 했다. 그때 결혼식 축하 의뢰가 들어왔다. ‘남성 4중창 전직 축가’

매번 해왔던 일이지만 문득 머릿속을 스쳤다. ‘아! 나 혼자서 자신 없지만 함께 노래할 때는 내가 잘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 그리고 보니 화음감은 남들보다 좋은 것 같고 특유의 친화력도 있고...’

갑자기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다.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 내가 노래를 할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면 우리를 불러주는 곳은 많아질 것이라 기대도 생겼다. 그렇게 소박한 욕심을 품고 ‘친친클래식’이라는 연주 전문 업체를 만들게 됐다.

이때부터 내 음악인생이 제대로 시작됐다. 내 마음가짐도 달랐다. 정통 클래식식을 포함한 ‘팝페라’라는 장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료들과 함께 레퍼토리를 짜고, 다 같이 모여 고민하고, 노래하고, 음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 자연스레 축가를 비롯해 우리를 찾은 무대가 늘어갔다.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 노래한다는 것, 부르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에 관객의 진심 어린 브라보가 터져 나오기 충분했다.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렇게 함께 노래하는 앙상블의 묘미는 무엇일까? 중창이든 합창이든 함께 노래할 때 뒤는 목소리가 많아지면 그 노래는 지저분해지기 마련이다. 부르는 사람이 더 크고 잘 들리게 하기 위해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거나 자신이 더 돋보이고 싶어 치고 나가게 되면 듣기 싫은 노래가 된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며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

으며 개개인의 연습이 반복되면서 각자 파트별로 음이 자리를 잡고 완성도를 높여간다. 마지막 연습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놀라운 하모니가 펼쳐진다. 서로의 눈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며 어우러지는 화음은 작지만 강한 감동을 준다. 이것이 무대에서 보여졌을 때 부르는 우리에게도, 듣는 관객에게도 새로운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 다양한 음악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팝페라라는 장르를 다뤄 대단한 분이 불렀던 ‘팬텀싱어’와 아카펠라라는 장르를 다루는 ‘보컬 플레이’ 등이다. 오로지 사람의 목소리로 각자의 개성을 녹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냈을 때 감동은 혼자 노래할 때와 다른 신선한 감동을 선사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단점이 있고 그 단점을 알만큼 서로가 보완해주며 장점을 살려주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을 많이 봤다. 꿈도 자신감도 없던 내가 혼자서 아닌 함께 노래를 하면서 꿈이 생겼고,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도 생겼다. 인생은 혼자서 아니라 진심어린 누군가와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기고

한전공대 부지 선정, 산학연 협력 우선돼야



나기수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장

요즘 호남권에서는 한전공대 예정 부지가 뜨거운 관심사다. 그만큼 유치를 위한 지역 사회의 움직임 또한 분주하다.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생각한다면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열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지자체간 지나친 소모적 유치전을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지난 10월 ‘일체의 정치적·지역적 고려 없이 최선의 부지를 한전이 선정한다’는 내용의 광주·전남 공동 성명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필자가 유치 부지로서 현재 개발 중인 ‘광주 첨단3지구’를 부담 없이 제안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1·2지구의 우수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안고 있는 첨단3지구는 광주·전

남 상생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선의 부지라고 생각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간절한 유치 소망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2022년 개교 후 2050년까지 세계 최고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 부지는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을 연결하는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외국 성공 사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정보통신, 나노 재료, 태양열에너지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독일 드레스덴 과학산업단지의 성공 요인으로 드레스덴 공대 등 10개의 대학에서 공급되는 우수한 인력을 꼽으며, 독일 유수 대학의 성공 비결 역시 ‘산학연 협력 체계’가 가능한 입지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든다.

가까운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중국 판 실리콘 벨라라 불리는 중관촌의 성공 비결 역시 원활한 인력 공급을 꼽는다. 중국의 양대 명문대학인 베이징대와 칭

화대를 비롯해 베이징과기대학, 베이징이공대학, 베이징항공항천대학, 베이징재정대학 등 무려 39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중관촌을 둘러싸고 있다. 이들 대학과 2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 231개의 각종 연구 기관이 한데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실력이 강한 창신(신기술 창조)구역으로 자리 잡았다.

필자가 한전공대 유치부지로 제안한 첨단3지구 역시 반경 2km 내의 지근 거리에 광주과학기술원 등 4개의 대학교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25개 연구 및 지원기관, 946개의 기업체가 산·학·연 클러스터를 이루며, 명실상부 광주 경제 발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첨단3지구 내에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의료산업 클러스터, 친환경사업 집적단지 등이 추가로 들어서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이며, 현재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중인 지역이어서 유치가 확정되면 한전공대의 신속한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아울러 첨단1·2지구로 이미 갖춰진 생

활 편의 시설, 신용·양산·일곡지구 등 주거 단지와와의 뛰어난 접근성, 나주혁신도시까지 30분 거리의 탁월한 교통 편의 등도 최적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유치 부지가 첨단3지구 내 광주만이 아닌 전남을 아우르면서, 지역적 연계에 있는 장성 나노산단을 비롯한 전남 북부 발전에도 기여해 광주·전남 상생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나주에 집중된 가운데,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전남 북부권과 광주시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전공대 유치 부지는 반드시 대학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공가능성이라는 본질적 목표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 산학연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큰 곳이기 어디 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세계 최고 대학 건설,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목표를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 전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社說

고달픈 ‘요양 보호사’ 갑질은 제발 이제 그만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한데 전남 지역 방문 요양보호사 열 명 중 일곱 명은 요양 업무 이외의 부당한 업무까지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전남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30곳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305명을 상대로 설문·면접 조사를 한 결과, 방문 요양보호사 77%가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빨래나 식사 준비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일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보호 대상자 가족들은 주말 동안 대상자 가족들이 미뤄 놓은 설거지까지 시키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들은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이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호대상자 대부분

이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언어·신체적 폭력 등 인권 침해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꼴로 ‘언어·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요양시설에서는 이용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요구만 들어줄 뿐 요양보호사 편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이들은 장기 요양시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확보 경쟁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물론 공익 광고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 장기 요양시설 설립 절차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요양보호사들이 ‘갑질’에서 벗어나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버림받은 동물들의 반격’ 피해 대책 세워야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야생화하면서 농가나 주택 등을 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먹거리리를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수준을 넘어 자신보다 덩치가 큰 가축을 공격하거나 사람까지 위협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옛것에 보성군 득량면의 한 축사에서 들개 세 마리가 송아지 한 마리와 청둥오리 13마리를 물어 죽였다. 출동한 119 대원들은 현장 주변에서 핏발테리어 잡종 한 마리를 마취 총으로 포획했지만 나머지 두 마리는 야산으로 달아났다. 담양과 장흥의 농가에서도 올 들어 들개의 습격으로 염소 10여 마리와 송아지 두 마리가 희생됐다.

도심 한복판에서도 들개들의 위협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광주 북구 전남대에서 여학생이 떠돌이 개 두 마리에 쫓기다 간신히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겨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도처에

출몰하는 들개들을 포획하기 위해 전남도 소방본부가 출동한 사례만 2016년 1693건에서 지난해 2911건으로 크게 늘었다. 광주동물보호소도 지난해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유기된 개와 고양이 3600여 마리를 들여놓았다고 한다.

개와 고양이는 오랜 기간 인간과 함께 생활하며 정을 나누어 왔고, 특히 1~2인 가구로 보편화되면서 이들을 삶의 동반자로까지 받아들이는 가정이 많아졌다. 하지만 주거 환경의 변화와 의료비 부담, 훈련 부족, 털 빠짐, 소음 등의 이유로 버려지는 개체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행정 당국도 유기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늘어나는 개체 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 자치단체처럼 동물 복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겠다.

無等鼓

한반도에 깔린 철로는 근·현대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철도 개설은 처음엔 자주적으로 시작됐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고종은 1896년(건양1년) 7월 15일 ‘칙령 31호’를 제정한다. ‘두 철로의 사이를 영척(英淸) 4척(淸) 8척(淸) 반(半)’으로 확정하는 등 6개 조항으로 된 ‘국내 철도 규칙’이었다. 철도 간격을 표준궤간(1.435m)으로 채택하는 등 자주적으로 철도 개설에 나섰다.

군인과 군수물자를 만주 등지로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였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1915년 10월에 철도 ‘일천 리’(마일·1600km) 기념 축하 행사를 열기도 했다. 길진 남북 간 철로는 분단의 상징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장단역 증기 기관차와 함께 ‘철마(鐵馬)’는 달리고 싶다는 문구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있다. 남북 정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기

차를 타고 경의선(개성-신의주)과 동해선(안변역-두만강역) 등지를 둘러보며 북한 철

철마는 달리고 싶다

앞서 같은 해 3월에 는 미국인 모오스(James R Morse)에게 경인 철도 부설권을 허락했다. 또한 8월 19일 일명 ‘백택안’(柏卓安)으로 불린 영국인 브라운(J. McLeavy Brown)에게 철도 사무를 감독하라고 명하고, 목포와 원산 등지를 다니면서 철도 부지를 정하게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한반도를 X자형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을 부설한 것은 일제였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1900년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을 시작으로 1905년 경부선, 1906년 경의선, 1914년 호남선과 경원선을 차례로 깔았다. 쌀과 광물을 일본으로 운반하고,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국문 발행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취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경의선	220-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다자언설	220-0536
		서울지국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